

1920~30년대 아동 독서운동 연구*

- 아동도서관 운동과 독서지도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ildren's Reading Movement in the 1920s~1930s:
Focus on the Children's Library Movement and Reading Education

윤 금 선 (Keum-Sun Yeun)**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III. 아동 독서 현황과 국내의 독서지도법 |
| II. '어린이의 발견'과 아동 독서운동 | IV. 맺음말 |

요 약: 이 연구에서는 1920~30년대 『동아일보』, 『조선일보』에 게재된 아동도서관 설립 운동 및 독서지도론을 중심으로, 아동 독서운동의 전개상을 고찰하였다. 즉 당대 두 신문에서는 아동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아동도서관 설립의 필요성, 아동 독서지도 및 독서경향 관련된 기사들을 꾸준히 게재했다. 본고에서는 이를 주목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분석하였다. 첫째, 1920~30년대 아동 독서를 강조한 배경적 의미와 이와 병행된 아동서관 설립에 대한 논의들을 탐색했다.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 민족운동과 아동교육의 관계, 당대 독서가 지니는 의미 등을 검토했다. 둘째, 이와 함께 당시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아동도서관 운동 전개 양상과 독서란을 통해 제시되었던 독서교육 방법론을 분석하였다. 이 시기는 그 어느 때보다 아동 독서교육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다. 여기에 아동도서관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각지에 소년문고가 다수 설치되기도 했다. 한편 신문의 독서란에는 학교와 가정에서의 독서지도 법도 다수 게재되었으며, 선진적인 해외 독서교육 사례를 통해 그 모본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해 1920~30년대는 아동 독서운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된 시기임을 알 수 있다.

주제어: 아동독서운동, 1920~30년대, 동아일보, 조선일보, 아동도서관, 독서교육, 소년문고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development of the children's reading movement, focusing on the children's library establishment movement and reading guidance theory published in the Dong-A Ilbo and Chosun Ilbo in the 1920s and 30s. This paper analyzed the following contents. First, this study explored the background meaning that emphasized children's reading in the 1920s and 30s and discussions on the establishment of a children's library. In the process,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al movemen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children's education, and the meaning of reading at the time. Second, in this study,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library movement that was actively developed at the time and a methodology of reading education presented through the reading section were reviewed. It was this period that everyone was more interested in children's reading education than ever before. In addition, as the children's library movement was actively developed, a number of "Sonyeon Mungo" was established in various places. Meanwhile, in the reading section of the newspaper, a number of teaching methods for reading at school and at home were published, and examples were presented through advanced overseas reading education model. From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it can be seen that the 1920s and 30s were the period when the children's reading movement was actively developed.

KEYWORDS: Children's Reading Movement, 1920s~30s, Dong-A Ilbo, Chosun Ilbo, Children's Library, Reading Education, Sonyeon Mungo

* 이 논문은 2019년도 동덕여자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임.

** 동덕여자대학교 교양대학 부교수(east124@dongduk.ac.kr / ISNI 0000 0004 6480 290X)

• 논문접수: 2020년 8월 24일 • 최초심사: 2020년 8월 25일 • 게재확정: 2020년 9월 7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3), 171-196, 2020. <http://dx.doi.org/10.16981/kliss.51.3.202009.171>

I. 머리말

1. 연구의 필요성

이 연구는 일제강점기에 해당되는 1920~30년대 『동아일보(東亞日報)』, 『조선일보(朝鮮日報)』에 게재된 아동도서관 설립 운동 및 독서지도론을 중심으로, 아동 독서운동의 전개상을 고찰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근대 계몽기부터 여성과 아동은 교육받아야 할 계몽 대상자로 인식되어 왔다. 당시의 교육목표는 소수의 인재에 대한 특별한 고등 교육이 아닌, 보통인에 대한 보편적 교육을 지향했기 때문이다(김봉희 1999, 19-20). 특히 1920년대에 들어서서 ‘소년운동’과 ‘어린이 날 제정’ 등 아동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면서, 아동교육과 아동 독서교육에 대한 논의들이 보다 활성화된 현상을 보인다.

이와 함께 본고에서 다룬 『동아일보』, 『조선일보』 두 신문에서는 아동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아동도서관 설립의 필요성, 아동 독서지도 및 독서경향과 관련된 기사들을 꾸준히 게재하기도 했다. 본고에서는 이에 주목하여 두 신문의 보도 자료 중 관련 기사들을 중심으로 아동 독서운동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 1920~30년대 독서 관련 기사들을 다룬 경우는 윤금선(2007)과 임수경(2010)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는 학생독서와 여성독서와 관련하여 부분적으로 아동독서의 현황을 살핀 경우이며, 후자는 1931년 『동아일보』의 ‘독서주간(讀書週間)’과 관련하여 신문의 게재 양상을 검토한 연구이다. 당대에 아동독서 관련 지면이 상당수를 차지하는데,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신문에 수록된 당대 아동도서관 운동 및 독서지도 관련 기사들을 분석함으로써, 동시기 아동 독서운동의 전개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아동독서의 중요성은 현대까지 이어져 오는 주요한 교육 쟁점이기도 하다. 일제강점기 아동독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독서지도론에 대한 검토는, 당대 아동독서 운동의 현황을 고찰하는 과정이자, 우리 민족에게 아동독서의 의미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뿌리를 탐색하는 작업도 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 과정은 아동독서사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현대 아동독서의 정신사적 맥락을 도출해 내는 과정이기도 할 것이다.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고에서는 1920~30년대 『동아일보』, 『조선일보』 두 신문에 수록된 당대 아동도서관 운동 및 독서지도 관련 기사들을 분석함으로써, 동시기 아동 독서운동의 전개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구체적인 분석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목하며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첫째, 1920~30년대 아동 독서를 강조한 배경적 의미와 이와 병행된 아동서관 설립에 대한 논의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는 일제강점기 민족운동과 아동 독서교육의 관계, 당대 독서가 지니는 의미 등을 함께 살펴보는 작업도 될 것이다. 둘째, 이와 함께 당대 활성화되었던 아동도서관 운동과 독서란에 제시되었던 독서지도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검토하는 텍스트는 1920~30년대 『동아일보』, 『조선일보』 양지의 보도 기사로서, 매일 발간되는 신문이라는 점에서 다소 광범위한 자료에 해당되기도 한다. 이에 연구 목적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중 주요 기사만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한편 두 신문 외에, 동시기에 발간된 여타 신문 지면의 아동 독서운동 관련 기사들도 논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지면상 일부 신문만을 제시하면서 논의를 진행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양 신문 외에 당대 여타 신문들의 수록 양상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남은 문제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할 예정이다. 그러므로 본고의 논의는 하나의 시론으로서, 우선적으로 『동아일보』, 『조선일보』 양지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음을 밝힌다.

II ‘어린이의 발견’과 아동 독서운동

1. 어린이 운동과 아동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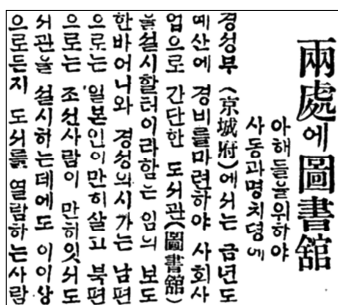
3·1운동 이후 식민통치의 변화와 함께 조선 교육계에서는 민중교육론이 새로운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종교단체를 비롯한 각종 사회단체는 민중을 자신들의 영향권 내로 포섭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으며, 농민·노동자교육론, 여성교육론, 아동교육론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김형목 2009, 143-150). 특히 민중교육론 중에서도 아동교육에 대한 논의는 급속하게 확산되었으며, 이와 함께 ‘어린이날’의 제정, 각종 소년 단체의 조직과 소년운동의 전개, 교육열의 급속한 팽창, 아동용 출판물의 급증, 아동문화의 제도화 등이 이루어졌다(조은숙 2006, 226-227).

아동에 대한 중요성은 조선의 갱생을 도모하는 근본운동이라 인식함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일제로 천도교 문화운동이론가인 이돈화(李敦化)는 새로운 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아동을 성인들보다 중요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장래를 위하여 성인들은 주도면밀한 용의(用意)를 가져야 한다고 역설하며, 그것이 조선의 장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이돈화 1921, 23). 이러한 움직임은 1923년 ‘어린이날’ 제정과 함께 소년운동으로 추진되기도 했다. 이후 국내에서는 소년단체를 중심으로 소년운동이 전개되었고, 1920년대 후반기에는 소년단체가 500여 개에 이를 만큼 소년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또한 소년단체가 증가하면서 소년운동은 독립운동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장석홍 2013, 254-255).

한편 3·1운동 이후에는 일종의 사회사업으로 활동사진관, 도서관, 박물관 등의 건립이 활성화 된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도서관 설립은 “아는 것이 힘”이라고 여기던 당대에 이의 확충이 요구 되었다(윤금선 2009a, 2-3). 즉 민족 회복이라는 당면 과제가 무엇보다 중요했던 당시, 우리가 배워야, 즉 읽어야 산다는 인식이 팽배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식 습득은 다름 아닌 독서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여겨 그 어느 때보다 독서가 강조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아동교육에서도 특히 독서교육이 중시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아래의 글은 일찍이 어린이 운동에 앞장 선 소파 방정환(方定煥)의 글로서, 이를 잘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1) “대륙(大陸)의 발견보다도 전기의 발명보다도 더 위대한 것은 ‘어린이’를 발견한 것이다”(…) 부모의 주무르는 한 장난감이나 어떤 용도에 쓸 도구인 이외에 따로 ‘어린사람’의 존재가 없어서 온 조선에서 ‘어린사람’의 발견은 가장 위대한 발견이었습니다. 기미년(己未年) 새벽을 맞이하여 온갖 길로 소생갱생(蘇生更生)의 길을 찾기에 열역(熱力)하는 사람이 당연히 생각할 것을 생각해낸 것이 ‘어린사람’의 발견이다. 그때의 경우로 보아 인류의 앞날을 위하여라는 것, 이 외에 조선 민족의 갱생(圖)하는 근본 운동으로서 더 크게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소년회(少年會)로 아동 독물(讀物) 지도연구(指導研究)로 갖가지로 책을 발견된 ‘어린사람’을 살리우는 노력이 뒤를 바치어 일어났으니 ‘어린이’ 운동인 동시에 곧 전체운동의 근본운동이었습니다(방정환 2020, 1-2).

위의 글에서 먼저 주목되는 내용은 “어린이”를 발견했다고 표현한 점이다. 삼일운동 이후부터 아동을 하나의 “어린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어린이 운동이 곧 “조선민족 갱생”의 근본 운동임을 강조하면서, “어린사람을 살리우는 노력”에서 중시했던 교육이 바로 독서지도였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도서관을 통한 독서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아동도서관 설립이 추진되기도 했다.



<그림 1>

<兩處에 圖書館>
(『동아일보』, 1922.3.17)

(2) 경성부(京城府)에서는 금년도 예산에 경비를 마련하여 사회사업으로 간단한 도서관(圖書館)을 설치할 터이라 함은 임의 보도한 바이 어니와 경성의 시가는 남편으로는 일본인이 만히 살고 북편으로는 조선 사람이 만히 있어서 도서관을 설치하는 데에도 이 이상으로든지 독서를 열람하는 사람의 편의를 따라서 조선인편의 도서관은 방금 리범승(李範昇) 씨가 경영하는 경성도서관(京城圖書館) 안에 특별히 아동도서관(兒童圖書館)을 설치케 하여 조선 아해들의 교외교육(校外教育)의 찬조가 되게 하고 일본인 편에는 명치당(明治町)에 있는 인천신보사(仁川新報社)을 수리(…) 아동의 도서열람실로 하고

<兩處에 圖書館> (『동아일보』, 1922.3.17)

위에 제시된 바와 같이, 경성부에서는 아동도서관을 설립할 계획을 갖게 되었다. 여기에 유지들의 기부금까지 더해져, 결국 아동도서관이 설립되기에 이른다.¹⁾ 한편 위 기사에서 주시할 점은, 아동도서관은 조선인 거점지인 북촌(경성도서관 부속)과, 일본인 중심지인 남촌(인천신보사 개축)에 동시에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힌 점이다. 즉 경성도서관은 조선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도서관이다. 1920년대 초기, 이곳에 아동도서관을 설치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경성도서관(京城圖書館)은 1921년 12월 초에 이범승에 의해 건립된 도서관으로서, 설립 초기부터 아동들의 독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²⁾ 아동도서관 개관 이후 조선 아동들에게 도서 열람 기회와 학습공간을 마련해 준 것은 물론, 도서관 내에 ‘소년구락부(少年俱樂部)’라는 단체를 두고 이를 주축으로 동화회, 강연회, 기타 아동 대상의 각종 문화 행사를 펼쳤다.³⁾ 특히 동화회는 아동들에게 호응이 높았고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당시 동화회 강사로는 방정환, 정홍교 외 여러 인사들이 담당하였고, 매주 토요일이나 일요일 오후에 동화회를 이끌어갔다(윤금선 2009a, 35-50). 이러한 활동상으로 인해 도서관에는 다수의 학생들이 몰리기도 했고, 아동들에게 더 많은 책을 열람케 하려는 목적에서 서적을 매입하기도 하는 등 아동 독서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⁴⁾

이러한 아동 독서운동은 범사회적인 운동으로 이어져 농촌계몽대를 통해 문자교육 및 동화읽기 등으로 확산되어 아동들의 독서열을 고취시키기도 했으며,⁵⁾ 아동 독서운동이 도서관 차원에서 절실함을 주장하며 각처에 아동도서관을 설립하자는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신문 지면의 아동 독서지도 관련 기사도 다수 게재되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당대적 상황을 고려 하면서 1920~30년대 동아·조선 양지에 게재된 아동도서관 운동 및 독서지도와 관련된 주요 기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자료들은 아동독서에 대한 당대적 의미와 아동독서를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방안이 어떻게 모색되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시할 만하다.

2. 아동 독서운동과 아동도서관

가. 지식 전수와 독서의 습관화, 괴외독서를 위한 아동도서관

아동도서관 설립의 필요성을 논한 기사들을 보면, 대개 아동의 ‘지식 전수와 독서 습관화’와 ‘괴외독서(課外讀書)의 고취’라는 측면에서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兒孩와 圖書館(上-下)〉(『동아일보』, 1926.7.20~25), 〈少國民保護訓練(七)〉(『동아일보』, 1932.1.14) 등의 기사문은 이를 잘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
- 1) 〈市民의 義務로 一萬圓, 閱泳徽씨가 인사동 경성도서관에 일만원의 현금을 기부하여〉(『동아일보』, 1922.6.26)
 - 2) 〈兩處에 圖書館, 아해를 위하여 京城圖書館과 明治町에〉(『동아일보』, 1922.3.17)
 - 3) 〈現代少年俱樂部 開館. 京城圖書館內에 사무소를 설치 서적열람〉(『조선일보』, 1925.4.2)
 - 4) 〈京城圖書館 書籍買入〉(『동아일보』, 1923.09.19), 〈臨迫한 試驗期와 學生의 讀書激增〉(『동아일보』, 1923.12.10)
 - 5) 〈第一回 學生 브나로드運動〉(『동아일보』, 1931.8.18), 〈讀書消息〉(『동아일보』, 1931.8.24)

먼저 〈兒孩와 圖書館(上)〉(『동아일보』, 1926.7.20)은 당시 일본 아동도서관 설립운동과 비교하면서 아동과 도서관의 문제를 다룬 점에서 주목된다. 동경에 거주하는 김영근(金英根)이라는 필자가 투고한 글로서,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그림 2〉 〈兒孩와 圖書館(上)〉
(『동아일보』, 1926.7.20)

(3) 兒童圖書館에 對하여(…) 日本의 現狀을 볼진대 各學校 或은 村落에서 甚한 運動과 적지 않은 勞力(…) 專門家들에게 意味있는 質問을 하는 等으로 大段한 好結果를 보는 模樣(…) 무슨 까닭으로 兒孩의 圖書館을 만들며 어지하여 讀書가 兒童에게 必要하나?(…) 우리 人類는 이 自然界에 生存하는 어떠한 動物보다도 特殊한 발달을 하여 왔다(…) 文字가 있는 것이 그 原因(…) 祖先이 各方面으로 經驗하여 온 것을 記錄하여 後世에 傳達시켜 그들이 研究하여온 것을 多大한 受苦를 드리지만코 우리의 知識範圍

를 넓히어(…) 書冊을 만들어 候人의 努力을 除하여 주었으므로 오늘날의 榮華로운 文化生活을 맞본다(…) 어린 兒孩들에게도 죽어 다시 도라오지 못할 우리 偉人傑士의 消息을 만히 傳하여 달란 말이올시다.

〈兒孩와 圖書館(上)〉(『동아일보』, 1926.7.20)

이 글은 일본 각 학교 및 촌락 등에 전개된 아동도서관 설립 운동을 들면서, 아동도서관 설립의 필요성을 논한 글이다. 인용구는 아동독서와 도서관 설립의 중요성을 언급한 부분으로, 그 첫째로 지식 전수의 방법과 연결시켜 논하고 있다. 즉 인류의 우월성은 문자의 소유에 있으며, 문자의 힘은 다름 아닌 선조(先祖)들의 경험과 연구 결과를 전수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이를 담은 서적을 읽음으로써 후세들이 수고를 덜 들이고 지식 범위를 넓히며, 영화로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 글은 아동도서관을 설치하고 아동들에게 “위인결사(偉人傑士)의 소식(消息)을 만히 전(傳)”하자는 입장이다.

둘째로는 독서습관을 길러준다는 측면에서 아동도서관 설립을 주장하기도 했다.

(4) 冊을 읽는다는 것도 趣味 업시는 到底히 不能함은 事實입니다. 그러면 그 趣味는 어데서 索得할가 唯一의 길이 있스니 어릴 때부터 讀書의 趣味를 養成하며 如斯한 習慣性을 길너오지 안으면 他에 길이 읽는 確信하거니와 世界一만이 認證하는 바이올시다. 보시오, 現今 歐米 거기에서는 어린이圖書館과 小學校에서는 讀書力을 增進시키며 讀書의 趣味를 養成시켜 一種의 習慣狀態에 이르기까지 努力하여 있지만 안습니가 結局 兒童圖書館의 必要를 寤김도 이 讀書의 趣味習慣을 根本적으로 養成시키고져 願하는데 있거니와

〈兒孩와 圖書館(上)〉(『동아일보』, 1926.7.20)

보다시피 아동도서관 설립의 또 다른 필요성은, 바로 “독서(讀書)의 취미(趣味)를 양성(養成)” 하기 위함이다. 이어지는 기사 내용을 보면, 중학교에 다닐 때에는 전문학교에 가면 책을 많이 읽어야지 하고, 전문학교 시절에는 사회에 나가면 책을 많이 읽겠다고 결심을 하지만 대개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원인은 다름 아닌 어릴 때부터 독서습관을 들이지 않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아동도서관을 설립하여 어린 시절부터 독서가 습관화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 기사문에서는 6~7세 어린 소아라는 구체적인 나이를 들면서, 이 시기부터 독서를 습관화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여기에 구체적인 교육 방법을 들기도 했는데, 첫째로는 읽지 못하는 아이에게는 그림을 보여주거나 그려가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효과적이며, 둘째로는 학교나 아동도서관에서 ‘동화회’나 ‘회화전람회’ 등을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며, 셋째로는 잡지 등의 서적에 반드시 삽화를 넣어 아동들의 지식 영역을 넓혀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시된 내용은 어린 아동들의 독서교육에는 문자만이 아닌 시청각적 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이자, 아동들이 독서에 흥미와 취미를 갖게끔 유도하는 독서교육론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아동도서관이 필요한 세 번째 이유로 든 것이, 바로 ‘과외독서’의 고취이다.

(5) 今日의 小學校에 教科書를 보시오, 各個人이 會合하여 各自 意見대로 各方面에서 인용한 片片之說임으로 兒孩들이 재미없시 녀김은 事實이거니와 片片之說로서는 到底히 人生的 情緒를 喚起치 못합니다. (...) 趣味를 惹起시키는 方法은 아니란 말이올시다. (...) 그럼으로 情緒를 陶冶 하는데 繼續的 精神을 가지지 못할지라. 옛던 童話를 읽는다던지 小說을 읽을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繼續하여 읽는 그 連絡的 過程에서 活動的 情緒의 힘이 머리에 박혀 自然히 情緒의 陶冶가 일어나는 同時에 感化作用이 湧出될 것이다. (...) 學校의 教科書만으로 新人生을 차출 수 업는 것도 事實이 어니와(...) 西洋의 文藝復興時代를 回顧하여 보시오, (...) 新世界 新知識을 熱望하엿습니다.

〈兒孩와 圖書館(下)〉(『동아일보』, 1926.7.25)

제시된 바와 같이, 학교 교과서 내용은 정서면에서 감화작용이 부족하며, 아동들의 흥미를 유발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서양의 문예부흥시대(르네상스기)는 그들이 신지식을 열망하여 얻은 결과라고 부연하며, 생동감 있는 지식 습득은 바로 도서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아동들의 독서 취미를 고양시키며, 생동감 있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아동도서관을 설립할 것을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필자 김영근은 아동도서관 설립과 함께 문고 설립을 병행하여, 아동들의 읽을 기회를 넓혀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6) 勿論 此 以外에도 兒童의 本性에 立脚하여 그 要求를 擴充하여야 될 方面도 만히 있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아시겠거니와 이와 갖흔 徹底한 理想을 떠나서는 冊을 太油갓치 摘載하여 두엇슬지라도 無所用인줄 알 것이오 바라건대 何必 兒童圖書館이라오 小學校나 或은 其他 兒童들을 만이 接觸하는 社會에서도 地方文庫라던지 學校文庫를 만이 設置하여야 될 줄 압니다.

〈兒孩와 圖書館(上)〉(『동아일보』, 1926.7.20)

보다시피 위 글에서는 독립적인 아동도서관뿐만 아니라, 지역별·학교별로 지방문고(地方文庫) 및 학교문고(學校文庫) 등도 설치하여 아동들이 책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을 보인다.

한편 〈少國民保護訓練(七)〉(『동아일보』, 1932.1.14)은 아동도서관의 목적을 들면서 그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어 주목되는 기사라 할 수 있다.



〈그림 3〉
〈少國民保護訓練(七)〉
(『동아일보』, 1932.1.14)

(7) 어른에게 도서관이 필요한 것보다도 더욱 아동에게는 도서관이 필요합니다. 아동도서관의 목적(...) 첫째 아동에게 선량한 책을 공급하는 동시에 유해 무익한 책의 열람을 방지하는 것, 둘째로 고상하고 청신한 지식과 오락을 공급하는 것, 셋째 어릴 때부터 도서관을 리용하여 조흔 책을 읽는 독서습관을 길러주는 것, 넷째 어릴 때부터(...) 조흔 책을 읽을 기회를 공급하는 것, 다섯째 학교에서 배운 학과 복습에 편의를 주는 것, 여섯째 책을 살 돈이 없어서 우는 아동들에게 무료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등입니다.

〈少國民保護訓練(七)〉(『동아일보』, 1932.1.14)

이 기사는 아동도서관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시할 만한데, 보다시피 6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밝히고 있다. 이를 재차 정리하면 첫째, 아동에게 양서를 공급하여 유해무익한 책의 열람을 방지하는 것, 둘째, 고상하고 맑은 지식과 오락을 공급하는 것, 셋째, 어릴 때부터 도서관을 이용함으로써 독서습관을 길러주는 것, 넷째, 양서를 읽을 기회를 공급하는 것, 다섯째, 학교에서 배운 학과 복습에 편의를 주는 것, 여섯째, 무료로 책을 제공하여 아동들의 읽을 기회를 넓히는 것 등이다. 이상의 내용은 일종의 아동도서관의 기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양서를 통한 지식과 오락의 공급, 이에서 비롯되는 독서 취미의 함양과 과외독서의 효과, 무료 대출로 인한 읽을 기회의 확산 등, 다양한 기능을 들어 아동도서관의 필요성을 논하고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兒孩와 圖書館(上)〉에서 주장한 아동도서관의 기능인 ‘선조들의 경험과 연구 내용을 전수하는 수단’, ‘독서 취미의 향상’, ‘과외독서의 고취’ 등과 〈少國民保護訓練

(七)에서 열거한 아동도서관의 목적 등은 아동도서관이 필요한 이유를 체계적으로 드러낸 주요 기사에 해당된다. 당시 이러한 아동도서관 설립 운동은 각지 소년문고 운동으로 확산되기도 하는데,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나. 소년문고 설립 운동⁶⁾

1920~30년대에는 조선·동아 양 신문사 및 각지 학교, 청년단체 및 소년단체 등에서 ‘소년문고’, ‘아동문고’, ‘순회문고’, ‘간이문고’ 등의 이름으로 일종의 문고 설립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기도 했다. 관련 기사는 동시기 조선·동아 양 신문에 다수 게재되었는데, 그 중 주요 기사들을 들면 <표 1>과 같다.

<표 1> 1920~30년대 소년문고 설립 관련 기사

번호	제목	신문명	게재연월일	내용	비고
1	少年東亞日報	동아일보	1925.3.22	해주소년수양회에서 아동문고를 설치하기 위하여, 시대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지국 후원으로 가극과 동화극 대회 개최	아동문고
2	少年東亞日報	동아일보	1925.11.14	봉암소년회 소년문고 설치. 유지들의 원조로 수십 종의 서적을 구입하여 일반 아동에게 무료로 열람케 할 계획	소년문고
3	京城附近青年動者大會	동아일보	1925.11.16	순회문고 설치와 소년운동 점검	순회문고
4	東西音樂大會	동아일보	1926.4.24	소년문고 설치를 위한 동서음악대회 개최. 마포청년회 주최 동아일보 후원	소년문고
5	제천소년회	동아일보	1926.8.11	제천소년회에서 유지들의 기부로 소년에게 유익한 간이문고를 설치	간이문고
6	돈을 모아서 문고설치	동아일보	1926.9.22	신천소년단이 고기를 잡아 팔고 유지들의 동정금으로 서적을 구입하여 아동문고 설치	아동문고
7	少年文庫 募集	조선일보	1927.1.24	선천 사각소년회에서 소년문고를 위한 서적을 모집	소년문고
8	어린이소식	동아일보	1927.6.7	소년소녀 문예전람회 개최 및 소년문고 설치 논의	소년문고
9	德性教育 활발	동아일보	1927.6.26	동명학교에서 어린이를 위한 아동문고 설치	아동문고
10	少年東亞日報	동아일보	1927.10.6	소년 추계강연회 개최와 소년문고 설치	소년문고
11	少年文庫設置	조선일보	1927.2.3	목포소년회 회사금으로 소년문고 설치	소년문고
12	嶺南地方	동아일보	1928.1.24	김천 지부에서 소년문고 설치 결의	소년문고
13	馬山の 歌劇會	동아일보	1928.3.2	마산소년동맹. 조선 동아 신문사 후원으로 소년문고 설치를 위한 가극회 개최	소년문고
14	兒童文庫 設置	조선일보	1929.1.9	동창생의 미거로 고령보교 아동문고 설치	아동문고
15	兒童文庫 設置	조선일보	1929.3.27	송라사립보교에서 아동문고 설치	아동문고
16	球場少年會創立	동아일보	1934.12.12	구장소년회에서 도서실을 설치하여 무산 아동의 독서 편의 제공	아동문고
17	前川公普校圖書室建設	동아일보	1935.3.30	전천공보교 동창회 임시총회로 아동문고 설치	아동문고

6) 당시 아동을 위한 문고는 다양한 명칭으로 표현되었지만, 여기에서는 당대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여졌던 ‘소년문고’를 대표적인 명칭으로 사용하였다.

문고 설립에 관한 기사는 상당수 게재된 편인데, 제시된 주요 기사들만 보아도, 신문사 및 청·소년 단체, 학교 및 동창회, 지역별 유지들에 의해 문고 설립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문고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음악대회, 가극회 및 동화회, 문예전람회, 강연회(1, 3, 8, 10, 13) 등을 개최했다는 점도 주목되는데, 당시 라디오에서도 “라디오少年文庫”라는 독서 프로그램이 방송될 정도로⁷⁾ 문고설립 운동은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한편 이 외에도 1930년대 중후반부터 활성화된 ‘농촌문고운동’에서도 아동문고 설치의 주요한 사업에 속했다.



(8) 農村文庫란 農村文化를 背景한 一種의 簡易圖書館이다. 圖書館이란 圖書와 其他 文典을 貯藏하여 閱覽者의 要求에 應하여 公開하는 消極的 方面으로서 社會文化事業의 一領域을 擔當한 社會教育기관이다.(…) 學校가 없는 더욱이 簡易學校의 惠澤도 입지 못하는 相接한 二三農村部落을 一單位로 하여 그 中心地域에 簡易한 農村文庫를 施設할 것이다. 이 文庫에는 그 部落 或은 그 地方에서 優良하고 眞摯한 青年 一名乃至 二名을 選出하여(…) 部落兒童의 教育과 指導에 當케할 것이다.(…) 七八歲 兒童을 主로 初年級에 該當하게 할지며 午後班은 文盲이 아닌 高級班으로 하여 그 指導는 될 수 있는대로 文庫에 接近할 機會와 讀書法 其他 字典 等の 索引方法의 引導로 僞主할 것이다.

〈그림 4〉
〈農村事業을 附帶한 農村文庫設創의 急務(三)〉
(『동아일보』, 1936.3.1)

〈農村事業을 附帶한 農村文庫設創의 急務(三)〉(『동아일보』, 1936.3.1)

인용문에서도 나타난 바, 농촌문고는 농촌 전반적인 사회문화사업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다.⁸⁾ 특히 위 기사는 이 중 아동 대상의 농촌문고와 관련된 내용에 해당된다. 즉 교육기관이 없는 부락에 농촌문고를 설치하고 청년들로 하여금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독서지도를 담당케 했다. 이를 보면 7~8세 아동을 대상으로 수준별 독서지도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그 지도 내용을 보면, ‘문고에 접근할 기회와 독서법 기타 자전 등의 색인방법’ 등을 교육한다고 밝히고 있다.

위에서 제시한 기사들에서 드러나듯이, 1920~30년대는 사회 전반에 걸쳐 아동 독서의 독려와 문고설립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시기이다. 이와 동시에 그 구체적인 운영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는 기사들도 게재되는데, 아래에서는 어떠한 내용들이 다루어졌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7) 〈라디오少年文庫〉(『동아일보』, 1936.4.16~8.19)
8) ‘농촌문고’ 운동은 조선인들이 설립하고 관이 주도한 도서관 활동에 속한다. 조선인의 계몽에 대한 민족의식을 도서관 설립 운동으로 유인하고, 조선인의 활동을 정책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식민지화를 위한 교화의 목적으로 추진된 기관이라 할 수 있다(김남석 1996, 345 참조).

다. 아동도서관 운영의 실제

아동도서관 운영의 실제에 대해 다룬 기사로 주목되는 글은 〈少國民保護訓練(七)〉(『동아일보』, 1932.1.14), 〈農村文庫經營論 그 必要와 方法에 對하여(十四)〉(『동아일보』, 1937.11.16)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전자에서는 해외 아동도서관 사례를 통해 그 운영의 실재를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9) 아동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주는 규칙으로는 현세계에 대개 세 가지 별다른 규제 (...) 첫째는 책을 책상 위에 배렬해 놓거나 또는 책장에 끼워둔 후 아동들로 하여금 자유로 끄내 보도록 하는 것, 둘째는 사무원이 직히고 있어서 원하는 책을 아동 자유로 끄내다가 읽도록 하고 좀 귀중한 책은 보관해 두고 아동의 청구에 의하여 사무원이 빌려주도록 된 것 등입니다. 도서관이 가장 발달된 나라는 미국 (...) 사무원이 조흔 책이나 시를 크게 읽어 아동들에게 들려도 주고 또 하로 한두번 재미있는 동화를 들려줍니다. (...) 또 담화회라는 것이 있어서 유명한 어른들을 청해다가 역사, 전기, 지리, 박물 등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어 호기심을 이르킨 후에는 그에 관한 참고서를 소개하여 아동들로 하여금 그 책을 빌려다가 읽도록 인도해 줍니다.

〈少國民保護訓練(七)〉(『동아일보』, 1932.1.14)

위의 글에서는 먼저 세계적인 대출하는 방식이라며 개가식과 폐가식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는데, 특히 아동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게끔 “책을 책상 위에 배렬해” 놓는 방법을 든 것이 인상적이다. 또한 미국의 아동도서관 운영 방식도 소개했는데, 도서 열람 외에 직원이 양서나 동화와 시 등을 낭독해 주고, 소위 ‘담화회’라는 모임을 통해 명사들이 ‘역사, 전기, 지리, 박물’ 등에 관한 강연을 진행하여 아동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는 것이다. 또한 강연 후에는 해당 서적을 소개하고 대출하여, 독서를 유도한다는 내용도 밝히고 있다.

이 기사문에서는 미국의 아동도서관의 예를 계속 들며 여타 주시되는 내용들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게시판을 마련하여 양서나 시의성 있는⁹⁾ 도서목록을 공고하며, ‘공원도서실’이라는 이름으로 공원마다 도서실을 두어 아동들이 공원에서 책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자동차로 이동하는 ‘순회문고’가 있어 도서관이 없는 작은 촌락을 돌며, 일반인뿐만 아니라 아동들에게 책을 대출해 준다는 것이다.

또한 이 글에서 소개한 특기할만한 도서관 형태는 바로 ‘가정대부도서관’이다. 당시 미국 도서관에서는 도서관으로부터 원거리인 동네의 경우, 마을 중심부에 위치한 가정에 도서관의 책을 비치

9) “례를 들면 와싱턴의 생일이 갖가와 오면 그 약 한 주일 전에 벌써 그 게시판에 아모 날은 와싱턴에 관한 사적을 알고저 하면 이리이러한 책을 보면 된다고 도서목록을 죽 라렬하여 노는 것입니다.”(〈少國民保護訓練(七)〉, 『동아일보』, 1932.1.14)

언급하고 있다. 즉 영리목적이나 염가로 팔리는 저질적인 책이나, 신문에 현혹적인 내용으로 광고하는 책 등을 구입하지 말 것 등 아동들에게 읽힐 도서 선택의 문제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연재된 후속편에서는, 농촌문고의 '양서선택부'에서 추천하는 '아동도서목록'을 제시하기도 했다.¹⁰⁾ 농촌문고는 관주도의 도서관운동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내용들은 당시 농촌 아동문고 운영에 있어서 전반적인 지침으로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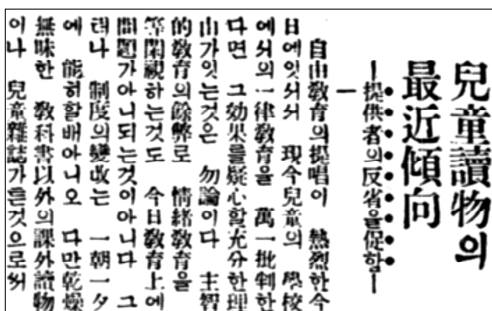
위에서 살펴본 바, 해외 아동도서관이나 국내 문고 등의 운영 방식 등을 논한 글들은 아동 독서운동에 대한 관심도와 체계적인 운영을 고심한 당대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아동 독서지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독서란을 통해 국내의 독서지도법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아래에서는 이 중 주시되는 기사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Ⅲ. 아동 독서 현황과 국내의 독서지도법

1. 아동 독서 현황과 독서지도법

가. 학교교육과 아동독서

〈兒童讀物의 最近傾向〉(『동아일보』, 1929.5.31), 〈朝鮮教育의 缺陷(十六~十七)〉(『동아일보』, 1930.9.23.~24) 등은 학교교육과 아동독서와의 상관성을 들며, 독서교육의 필요성을 으론하고 있어 주시될만한 기사들이다. 먼저 전자의 경우는 당대 학교교육과 아동독서의 관계, 아동독서물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그림 6〉
〈兒童讀物의 最近傾向〉
(『동아일보』, 1929.5.31)

(11) 主知的教育의 餘弊로 情緒教育을 等閑視하는 것도 今日 教育上에 問題가 아니 되는 것이 아니다. (...) 乾燥無味한 教科書 以外の 課外讀物이나 兒童雜誌 가튼 것으로써 이 缺陷을 얼마큼 補充하는 것은 반가운 事實이다. (...) 兒童의 讀物이 量으로나 質로나 보잘 것이 업는 것은 教科書의 內容을 超越하여야 할 朝鮮 兒童一般 讀物界를 爲하여 크게 遺憾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 雜誌의 種類로서도 相對한 數에 達할 것은 無疑한 일이다. 그러나 (...) 一般父兄의 兒童教育에 對한 沒理解와 理解

10) 〈農村文庫經營論 그 必要와 方法에 對하여(十四)〉(『동아일보』, 1937.11.17)

는 한다 할지라도 經濟問題로 多大數의 兒童은 無味乾燥한 所謂 教科書 以外에는 知識을 求하
라도 求할수 업스며 情緒를 淨化케 하라도 淨化케 할 길이 업다.

〈兒童讀物의 最近傾向〉(『동아일보』, 1929.5.31)

위 글에서 먼저 주목되는 내용은 학교교육에서 주지적교육(主知的教育)에 치중하여 정서교육(情緒教育)을 등한시한다고 본 점이다. 즉 교과서 위주의 무미건조한 교육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 외 ‘과외독물(課外讀物)’이나 아동 잡지 등으로 정서교육을 보충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인다. 그러나 아동교육에 대한 학부형의 몰이해와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다수의 학령 아동들이 교과서 이외의 지식을 습득할 수 없는 형편이며, 결과적으로 정서교육에 저해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과외독서물이 될 수 있는 아동 잡지의 질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그 문제점을 들었다.

(12) 現在 朝鮮에 兒童의 讀物이 업는 바는 아니다. 그 數字에 잇서서는 그것만 해도 內容만 充實 하얏스면 當分間의 兒童讀物의 面目을 維持할만큼 만타고 할 수 잇다. 可惜한 것은 群小 兒童雜誌가 이것을 어더케 兒童에게 보일 수가 잇나 탄식할만큼 內容이 貧弱하고 形式이 醜雜하다. 첫째는 雜誌 自體가 兒童을 標準함인지 어른을 標準함인지 分揀할 수 업게 된 것이 만흐니 童話에 잇서서, 童謠에 잇서서, 傳記, 史譚에 잇서서 兒童의 生活과 心理와는 何等の 交涉이 업는 것을 羅列하고 다만 概括한다는 理由로써 兒童의 歡心을 사려는 傾向이 確實히 보이니 얼마나 큰 兒童教育에 對한 錯覺이나(…) 于先 朝鮮의 兒童讀物을 整理 淘汰할 必要도 切實히 늦기는 바이다.

〈兒童讀物의 最近傾向〉(『동아일보』, 1929.5.31)

이 글은 “提供者(제공자)의 反省(반성)을 促(촉)함”이라는 부제를 단 글이기도 한데, 당시 범람하는 아동 잡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지적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1923년 소파 방정환이 『어린이』를 창간 이후부터 아동 잡지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1930년대까지 이어졌다. 당시 발간된 대표적인 아동잡지명만 제시해 보아도, 아래와 같은 다수의 잡지를 볼 수 있다.

(13) 『어린이』(1923), 『新少年』(1923), 『半島少年』(1924), 『새벗』(1925), 『新進少年』(1925), 『아희생활』(1926) 『별나라』(1926), 『少年界』(1926), 『영데이』(1926), 『少女界』(1927), 『學園』(1927), 『兒童樂園』(1927), 『노동야학』(1927), 『少年世界』(1929), 『아이동무』(1933), 『학생』(1929), 『少年中央』(1935), 『童話』(1936), 『少年』(1937), 『조선아동신보』(1929) 외(최덕교 2004, 228-293 참조)

이렇듯 다양한 아동 잡지들이 발간되는 가운데, 위 예문 (12), 〈兒童讀物의 最近傾向〉(『동아일보』, 1929.5.31)에서는 이러한 아동 잡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즉 아동의 생활이나

심리와 거리가 먼 동화, 동요, 전기, 역사 등의 내용, 난잡한 형식, 아동 잡지 표준의 미준수 등을 나열하면서 아동의 정서교육에 폐해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다수의 아동 잡지가 발간됨으로써 잡지사들의 판매 경쟁이 심화되고, 이에 아동의 환심만 사려는 저질적인 잡지들이 속출하게 된 것이라고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한편 주요섭(朱耀燮)이 쓴 〈朝鮮教育의 缺陷(十六)〉(『동아일보』, 1930.9.23)은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학교 독서교육의 현황을 비판한 글이라는 점에서 주시할 만하다.



(14) 朝鮮教育令에 依하면 普通學校學 科目 네 가지가 이 “德性의 涵養”으로서 그 要旨을 삼는다. 修身, 國語, 朝鮮語及 漢文, 唱歌, 이 四科目으로서(...) 그런데 이 國語와 朝鮮語 教授에 있어서 世界的 根本要旨만은 特히 朝鮮人教育 要旨에 있어서 是 빼버리고 말았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讀書의 趣味”를 涵養하는 要旨일 다. (...) “普通學校에서 아모 것도 가르쳐준 것이 업드라도 生徒들 에게 讀書할 能力과 趣味 오죽 그것 하나만 너허 주었다면 그는 成功 한 學校이다”(…) 그런데 “讀書의 趣味”를 길너주는 方法으로는 (...) 無味한 教科書보다도 兒童讀物, 童話, 兒童雜誌, 新聞 等に 置重하지 안흐면 안될 것이다. 特히 普通學校 五學年 以上에게는 教科書가 不必要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朝鮮教育의 缺陷(十六)〉(『동아일보』, 1930.9.23)

〈그림 7〉
〈朝鮮教育의 缺陷(十六)〉
(『동아일보』, 1930.9.23)

위 기사가 게재된 시점은 2차 조선교육령(朝鮮教育令)¹¹⁾ 시기에 해당된다. 주요섭은 이 교육 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있는데, 특히 ‘국어와 조선어’ 교육에서 독서교육을 간과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보통학교(普通學校)서 아모 것도 가르쳐준 것이 업드라도 생도(生徒)들에게 독서(讀書)할 능력(能力)과 취미(趣味) 오죽 그것 하나만 너허 주었다면 그는 성공(成功)한 학교(學校)이다”라는 언급과 함께, 교과서 위주의 학교교육만으로는 이러한 독서능력을 신장시킬 수 없다는 주장이다. 심지어 보통학교 5학년 이상부터는 교과서보다는 아동도서, 동화, 잡지, 신문 등을 통한 독서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후속 기사인 〈朝鮮教育의 缺陷(十七)〉(『동아일보』, 1930.9.24)에서는 각 학교 졸업자 수 통계(당대 기준 16년간 통계치)와 함께, 졸업 후 그들의 독서열이 저조한 현황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교과서 위주의 학교교육이 독서 취미를 함양시키지

11) 일제는 1910년대부터 1940년대에 이르기까지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여, 조선의 기존 교과 과정을 식민지 정책에 맞게 바꾸었다. 이 기간에 총 5차례 걸쳐 개정하기도 했는데, 1차는 1911년, 2차는 1922년, 3차는 1938년, 4차는 1943년, 마지막 5차는 1945년도로, 이 조선교육령은 식민지 조선의 교육정책의 근간으로 자리매김하였다(황의룡 2019, 3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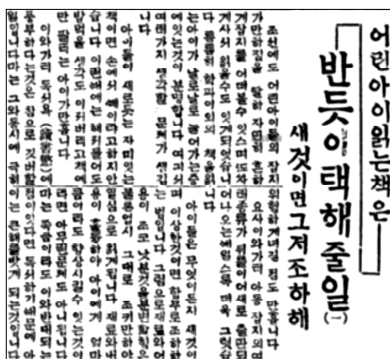
못한 데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위에서 살핀 〈兒童讀物의 最近傾向〉(『동아일보』, 1929.5.31), 〈朝鮮教育의 缺陷(十六~十七)〉(『동아일보』, 1930.9.23~24) 등의 기사들을 보면, 학교의 교과서 교육만으로는 정서교육이나 독서력 신장을 기할 수 없기 때문에, 독서를 통한 과외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보인다. 이는 학교교육 외에 과외독서가 중요함을 강조하는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앞서 아동도서관 설립을 주장하는 논의들에서도 동일하게 언급된 바 있기도 하다.

나. 독서습관을 위한 가정 독서지도

한편 조선·동아 양 신문을 보면 따로이 독서란을 두고 아동 독서지도법에 관한 기사들을 게재하기도 했다. 특히 1930년대에 이르러서는 그 내용도 다양해지고 지면도 증가세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문맹퇴치 운동과 독서구락부 운동 등으로 문식성이 신장되었다는 시기적 상황이 가세한 것으로 보인다.¹²⁾ 그런데 이러한 자료들은 대개 가정에서 어떻게 독서지도를 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다루는 경우가 많다. 관련된 기사들 중 주시할만한 순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즉 〈어린이 읽는 책은 반듯이 택해줄 일(一)〉(『동아일보』, 1930.10.27), 〈兒童讀物의 最近傾向〉(『동아일보』, 1929.5.31), 〈아동의 읽는 책을 엄격하게 선택하라〉(『조선일보』 1932.2.27), 〈아동이 독서할 때 여러 책을 주지 말라〉(『조선일보』, 1933.9.12) 등이다.

먼저 YC라는 필자가 쓴 〈어린이 읽는 책은 반듯이 택해줄 일〉은 『동아일보』(1930.10.27~28)에 2회 연재된 글로써, 아동 잡지와 가정에서의 독서지도를 논한 경우이다.



〈그림 8〉 〈어린이 읽는 책은 반듯이 택해줄 일(一)〉
(『동아일보』, 1930.10.27)

(15) 조선에도 어린이들의 잡지가 만하집을 짜라(…) 바른 지도와 선택으로써 아이의 독서력을 일으키어 준다면 아이는 첫째로 책에 재미를 부치게 되는 동시에 자연히 학교공부에 보충이 되고 둘째로(…) 배우는 태도를 길러줄 수 있으며 셋째로 지식을 넓혀 주어(…) 첫째로 그 잡지의 출판 목적이 아이 분위가 아니고 영리 본위인 것(…) 그러나 아이의 맘을 끌기 위하여 속을 전부 무시무시한 모험소설 또는 천박한 만화(漫畫) 그리고 감상적인 소녀 소설 가튼 것으로 꾸미고 또 표지의 채색 가튼 것도 농후하고 천박한 것이나 강렬한 자극을 끼치는 것으로 한 것이 눈에 흔히 띄웁니다.

〈어린이 읽는 책은 반듯이 택해줄 일(一)〉
(『동아일보』, 1930.10.27)

12) 1920년대 중반기부터 ‘한글운동’이 신문사의 조직적인 홍보와 후원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일종의 독서모임인 ‘독서구락부(讀書俱樂部)’가 전국 곳곳에 결성되어 이를 통한 독서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기도 했다(윤금선 2009b, 127 참조).

앞서 〈兒童讀物의 最近傾向〉(『동아일보』, 1929.5.31)에서도 1920~30년대에는 아동 잡지가 경쟁적으로 발간됨에 따라, 내용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글 역시 아동 잡지가 격증하는 현상을 보면서, 가정에서의 잡지 선택 및 지도의 문제를 논하고 있다. 이를 보면 당시 아동 잡지가 많아짐에 따라, 그 질적인 면에서 우려가 컸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위 글에서는 잡지가 신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되고, 괴외교육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다. 그러나 실제 아동 잡지들을 보면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출판 목적이 아이 본위가 아니고 영리 본위이며, 내용면에서도 흥미를 끌기 위한 모험소설, 천박한 만화, 감상적인 소설 등이 주로이고, 표지의 채색 등이 천박하고 자극적인 잡지가 흔하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글은 가정에서의 적절한 잡지 선택과 지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 연재된 2회 기사에서는, 잡지 선택 시 주의할 사항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16) 첫째, (...) 삽화가든 것도 농후하지 안코 가터잇는 것(...) 글이나 글자가 학과 교과서와 비등하게 분명하고 커야 할 것이며 그러고 조희의 품질까지에도 류의(...) 둘째로 취미적인 것이어야(...) 동요 동화와 가튼 것으로 정평잇는 명사들의 작품이 안전(...) 셋째로 (...) 리과에 관한 것으로 동식물의 이야기라든지 천문(天文)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물리화학에 관한 것 가튼 것을 될수록 쉽고 취미가 만케 그러고 정확하게 쓴 것(...) 과학편의 것을 아이들이 실행합니다마는 어릴 때부터 이 방면의 취미를 길러주어야 합니다. 넷째로 지리와 역사에 관한 것으로 세계 일주기 위대한 전기 가튼 것으로 김흔 고비에 접촉시킬 기회(...) 어릴 때에 바든 감격은 그 사람의 일생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어린이가 읽는 책은 반듯이 택해줄 일(二)〉(『동아일보』, 1930.10.28)

위에 제시된 내용에 따르면, 먼저 편집면에서 삽화가 자극적이지 않고 글자가 교과서와 비등한 크기여야 한다는 것이다. 삽화만이 아닌 글자 폰트까지 다루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한편 내용면에서는 정평 있는 작가들의 동요·동화가 수록된 것을 선택하고, 아동들이 멀리하는 이과 부문의 천문과 물리, 화학, 과학 등의 잡지를 읽혀 취미를 갖게 하라고 제안하고 있다. 특히 이과 계열 잡지 추천은, 당대 아동들의 독서 편중 현상을 반영하고 있어 눈에 띄는 내용이기도 하다. 기타 안목을 넓힐만한 지리와 역사, 세계 일주기 등과 일생에 영향을 줄만한 위인들의 전기 관련 잡지들을 권하는 등, 잡지 선택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아동의 읽는 책을 엄격하게 선택하라〉(『조선일보』 1932.2.27)에서도 가정에서의 독서지도와 아동도서 선택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글에서는 '자녀의 성격과 취미를 보살피 독서열이 생기도록 책을 권하라'라는 부제를 달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17) 가정에 잇서서 부모들이 자기를 자녀에게 얼마큼이나 독서방면을 주의하고 계신 것입니까? 거저



〈그림 9〉
〈아동의 읽는 책을 엄격하게 선택하라〉
(『조선일보』, 1932.2.27)

학교에만 보내면 잘 배우겠지 하고(...) 어머니 되시는 분들은 우선 제일차로 어린아이가(...) 글자를 알만하게 되면 아동의 성격을 따라서 그 아이의 방향을 잘 보살피어서 적당한 책자를 사다가 보도록, (...) 아동의 성격이나 또는 방향을 알지 못하고 사다주게 되면(...) 그 책에 대하여 흥미를 갖지 못하며 (...) 엇더한 책이든지 뜻을 메시 못하고 조금씩 보다가 버리는 습관을 길러주게 되야 이것이 장래에 커서라도 그러한 습관을 영영 갖게 됩니다.

〈아동의 읽는 책을 엄격하게 선택하라〉(『조선일보』, 1932.2.27)

위의 글에서는 가정에서 아동 독서교육에 무심함을 지적하면서 자녀들이 글자를 해독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책을 읽혀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독서교육은 학교교육에만 의존할 것이 아닌 바로 가정에서 부모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독서교육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도서선택이라 지적하면서, 자녀의 취미와 성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자녀의 독서 흥미 유발과 상관된 것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중도 포기하고, 결국 성당한 후에도 책을 끝까지 읽지 못하는 악습으로 남게 된다는 것이다. 이 기사문에서는 여타 책 선택 시 유의할 점을 부연하기도 했는데, 부모들이 먼저 서적 내용을 읽어본 후에 선택하며, 특히 다른 집 아이가 읽는다고 자녀에게도 권하지 말 것을 제언하고 있다. 결국 이 기사는 부제에서 밝힌 것처럼, 아이의 고유한 성격과 취미를 고려하여 그에 맞는 책 선정을 권고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아동의 독서습관 문제는 〈아동이 독서할 때 여러 책을 주지 말라〉(『조선일보』, 1933.9.12)에서도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는 아동들에게는 무슨 책이든 한권을 주고 그것을 끝까지 읽히게 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러 권의 책을 주면 책을 넘나들며 한 책을 완독하지 못하고, 시작과 끝만 대충 읽는 악습만 양산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동아·조선 양 신문의 독서란에는 가정에서의 독서지도와 관련된 기사들이 자주 게재되는데, 일련의 기사들은 가정 독서교육에서 가장 우선시할 것이 바로 자녀들의 독서습관 함양에 있으며, 이를 위해 부모들이 어떠한 책을, 어떻게 읽혀야 하는가의 문제를 다룬 경우들이다. 게재된 내용들은 지금 이 시대의 아동독서와 관련해서도 시사점이 크다고 하겠다.

다. 기타 독서란의 독서지도

앞서 언급했듯이, 동아·조선 양 신문의 독서란에는 가정 독서지도론과 관련된 다양한 기사들이 게재되었다. 여기에는 도서선택 문제와 함께 읽기방법 등을 논한 기사들도 다수 볼 수 있다.

이 중 주시되는 자료들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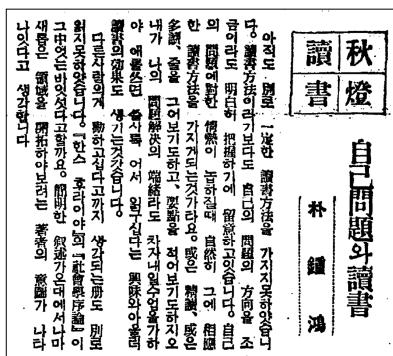
<표 2> 독서란의 아동 독서지도 관련 기사

번호	제목	신문명	게재연월일	내용	비고
1	사랑하는 子女의 讀書材料는 무엇	조선일보	1928.1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람하는 서적 중에서 부모가 양서를 선택해야 • 학교 문고, 도서관에서 대출하여 읽기 • 독서는 정조도야의 방법 	도선선택
2	독서할 시절 눈위생에 주의	동아일보	1928.9.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을 눈에서 한 치 이상 떨어뜨려 보기. 활자가 큰 서적이 아동의 눈 위생에 바람직 	위생독서
3	이해력과 독서력이 큰 관계가 있다	동아일보	1929.8.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독서력이 이해력을 증진 • 수준별 독서교육이 필요 	독서교육
4	부형의 지도하에 신문을 아이들에게도 읽히라	동아일보	1932.4.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와 함께 신문 읽기는 독서기술을 향상시키고 현대의 중대 문제를 분명하게 교육하는 기회 	매체읽기
5	년령에 따라서 경향이 다릅니다	조선일보	1933.9.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기: 문자연습시기(보통학교 1학년) 동화 읽어주기 • 제2기: 문자쓰기시기(보통학교 1학년 3학기~2학년) 동화류 읽히기 • 제3기: 영웅숭배시기(보통학교 3,4학년) 책 선택이 주요한 시기. 모험을 좋아하는 시기이므로 양서 읽히기 • 제4기: 현실파악시기(보통학교 4,5학년) 위인전, 성공미담 읽히기 • 제5기: 개성정립기(보통학교 6학년) 아동의 취미와 경향에 따라 책 읽히기 	도서 선택
6	自己問題와 讀書	조선일보	1935.9.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문제의식을 파악하고 그 답을 찾는 방법으로 읽기 • 정독과 다독 • 요약하기 등의 독서법이 효과적 	읽기방법
7	讀書와 古典	조선일보	1935.9.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호하는 1권이나 몇 권의 책을 정하고 반복하여 정독 완독 • 박람회보다는 일람과 애독이 필요 	읽기방법
8	인물 완성의 기초가 되는 어린이의 독서	동아일보	1938.9.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독서에 관심을 갖고, 동화만이 아닌 위인전을 많이 읽힐 필요 	도서선택
9	학교교육만 믿지 말고 과외독서도 주의하자	조선일보	1940.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적이며 연령에 맞는 책 • 표제만 보지 말고 읽어본 후에 어린이에게 줄 것. 지나치게 교육적인 책은 흥미가 아동의 흥미를 잃게 함으로 주의 • '아동우량도서일람표'를 작성해 둘 것 • 저자 파악 • 정평 있는 책, 신뢰 있는 지면의 독후감을 참고 • 나이에 적당한 장정과 활자의 선택 	도서선택
10	독서와 아동	조선일보	1940.6.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읽기를 시작하는 최적기: 6세 경(남아보다 여아가 문자를 쉽게 분별하며 좀 더 빠르기도 함) • 독서가 더딘 사람은 오른쪽 시력이 좋은 경우 • 아동들은 8포인트 글자 크기 이상이 적합. 폰트가 클수록 독서 속도 증가 • 독서속은 중학교 때에 발달, 고등학교 시절에는 감소 	기타 독서 관련

13) 본고는 1920~30년대 『동아일보』, 『조선일보』에 게재된 기사들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나, 여기에서는 내용상의 연계성으로 1940년도 초중반 기사도 일부 다루었다. 또한 일부 기사는 윤금선(2007)에서 일제강점기 학생독서 일반을 다루면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특별히 아동 독서운동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음을 밝힌다.

위에 제시한 자료들은 주로 도서선택 방법 및 읽기 방법론에 관한 내용들이다. 도서선택의 문제를 다룬 경우를 보면, 먼저 <사랑하는 子女의 讀書材料는 무엇>(『조선일보』, 1928.10.9)에서는 정조도야라는 독서의 가치를 내세우면서 인성 면에서 영향을 끼칠만한 도덕적인 책 선택과, 문고나 도서관의 책들을 읽힐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년령에 따라서 경향이 다릅니다>(『조선일보』, 1933.9.12)에서는 연령별 도서 선택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즉 보통학교 각 학년별 아동 발달 상황과 그 특징들에 근거하여 제1기부터 5기까지 시기를 분류하고 있다, 여기에 그에 따른 도서선택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는 기사이다. 한편 <인물 완성의 기초가 되는 어린이의 독서>(『동아일보』, 1938.9.16)에서는 아동에게 동화만이 아닌 위인전 등을 선택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기사는 동화만을 즐겨 읽는 아동 독서의 편중성을 지적하는 내용이자, 다양한 읽을거리를 선택해 줄 것을 제언한 글이기도 하다.

기타 <학교교육만 믿지 말고 과외독서도 주의하자>(『조선일보』, 1940.3.8)에서 주목되는 것은 ‘아동우량도서일람표의 작성’, ‘저자나 평자(“정평 있는 책, 신뢰 있는 지면의 독후감” 등) 참고’, ‘나이에 적당한 장정과 활자의 선택’ 등의 방법론을 제시한 점이다. 이 글은 도서 선택 시 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책의 외형, 글자 크기까지, 그 유의점을 세세히 밝히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림 10〉
〈自己問題와 讀書〉
(『조선일보』, 1935.9.24)

위에서 제시한 기사들은 ‘무엇을 읽어야 하는가?’라는 일종의 도서선택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외에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라는 읽기방법론을 논한 기사들도 볼 수 있다. 먼저 <自己問題와 讀書>(『조선일보』, 1935.9.24)는 박종홍(朴鍾鴻)이 필자로서, 당시 저명한 사상가로 알려졌던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효과적인 읽기는 문제의식을 갖고 답을 탐색하듯이 읽어가기, 정독과 다독, 요약하기 등의 독서법이라고 제언하고 있다. 또한 <讀書와 古典>(『조선일보』, 1935.9.29)은 문필가인 이광수(李光秀)가 ‘장백산인(長白山人)’이라는 필명으로 투고한 글이다. 그는 많이 읽는 ‘박람(博覽)’보다 몇 권을 책을 반복하여 ‘완독(完讀)’하는 것이 독서의 요체라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명사들의 읽기방법론은 에토스(ethos)적 요소로 작용하여, 독자들에게 신뢰도 있는 독서법으로 전달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기타 <이해력과 독서력이 큰 관계가 있다>(『동아일보』, 1929.8.15)는 아동의 독서력과 이해력의 상관관계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주목되며, <부형의 지도하에 신문을 아이들에게도 읽히라>(『동아일보』, 1932.4.18)는 신문읽기가 아동의 독서기술을 향상시키고 현세대의 중대 문제를 교육하는 기회라고 하여, 매체교육적 측면에서 논한 점이 특징적이다. 한편 <讀書와 兒童>(『조선일보』, 1940.6.18)은 교육잡지에 수록된 연구 논문을 소개한 경우로, 남녀 아동의 독서 능력의 차이, 눈 건강

과 관련된 위생독서의 측면, 아동이 읽기 쉬운 폰트 크기 등 독서지도에서 고려해야 할 여타 문제를 다루고 있어 주목된다. 여기에 <독서할 시절 눈 위생에 주의>(『동아일보』, 1928.9.28)의 경우도 아동 독서에서 활자 크기와 눈 위생의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지금까지 독서란에 게재된 가정에서의 도서지도, 도서선택 방법과 독서법 관련 기사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보면 가정 독서교육에서 가장 중시되는 요소가 다름 아닌 자녀들의 독서습관함양에 있으며, 이를 위해 부모들의 적절한 책 선택과 지도가 필요함을 논의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타 독서란에서는 양서 선택의 기준, 연령에 적합한 수준별 도서 선택법 등 ‘무엇을 읽어야 하는가?’의 문제와 독서법, 위생독서, 매체읽기와 교육적 효과 등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처럼 1920~30년대는 조선·동아 양지를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아동 독서지도론이 논의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해외 독서교육

한편 독서란에는 해외 사례를 통한 선진적인 독서교육법이 소개되기도 했다. 그 가운데 주목되는 기사를 들면 <個性教育(8~12)>(『동아일보』, 1931.2.26.~3.7), <泰西教育의 歴史的 觀察(七)>(『동아일보』, 1921.5.20), <泰西教育의 歴史的 觀察(一二)>(『동아일보』, 1921.5.27), <朝鮮教育의 缺陷(二十一)>(『동아일보』, 1930.9.30) 등이 대표적이다.

먼저 <個性教育(8~12)>(『동아일보』, 1931.2.26~3.7)은 ‘경성제대(京城帝大) 교육연구실’의 김용하(金容河)가 쓴 글로, ‘위네트가 안(案)에 대(對)하야리는 부제로 연재된 기사이다. 당시 미국 교육기관인 ‘위네트가 학원’의 교육방법, 즉 ‘위네트가·시스템(Winnetka System)’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경우이다. 이 학원의 책임자는 “교육개조가(教育改造家)”로 저명한 위슈번 박사로서, ‘획일주의와 시간 한정 학습을 타파’하고 소위 ‘개성교육’을 지향한 인물이다. 기사에 따르면, 이는 당대 각국 교육계의 관심을 끈 교육방법론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연재 기사에서 특히 주시할 만한 내용은, 개성교육을 토대로 한 ‘위네트가 학원’의 독서교육 방법이다.



<그림 11> <個性教育(8)>
(『동아일보』, 1931.2.26)

(18) 兒童은 一個年에 約十五冊이나 넓어야 된다. 이러한 書冊이 어느 學年에 適當할가를 慎重히 決定함에는 여러가지 心理學的 方法을 쓴다. 이 方面의 科學的 事務處理의 一例를 들면 參考書의 等級 決定이다. (...) 米國 各 地方에 書面으로 照會하야 各年齡 各學年의 兒童이 讀한 書籍名, 趣味의 與否, 그 理由, 어떤 部分이 特別히 趣味있었는가 등을 回答케 하야 그것을 整理하야 各學年의 擔任教師에게 暗示를 與한다. 다음에 各書冊의 困難程度가 生하는 理由를 研究한다.

<個性教育(8)>(『동아일보』, 1931.2.26)

위 기사는 위네트가 학원의 독서교육에서 학년별 도서 선정의 과정을 다루고 내용이다. 이 학원에서는 아동들이 1년 간 15책을 읽도록 규정했으며, 인용 부분은 학년별 필독서 선정 및 등급 결정 과정을 밝힌 내용이다. 이를 보면, 먼저 지방별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각 학년별 아동들이 읽은 서적명, 취미의 여부와 그 이유, 특별히 흥미 있는 부분 등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교사들에게 전달하여 참고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각 서적에서 아동들이 겪는 난이도를 분석하고 그 이유를 연구하기도 했다.

이 기사에서는 그 연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는데, 책의 추상명사, 구체명사, 형용사의 종류, 구, 문, 복문, 기타 문장 요소 등의 빈도수를 검토하고 그 정도에 따라 발생하는 난이도와 이유 등을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추천 도서를 결정하여 독서우량아에게는 4년 혹은 5년을, 열등아에게는 3년 정도 읽을 분량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시 위네트 학원이 상당히 구체적인 방법으로 독서교육을 실시했음을 보여준다.

한편 〈個性教育(12)〉(『동아일보』, 1931.3.7)에서는 독서법의 목표를 밝히고 있는데, “빠르게(速) 읽고 잘 이해하며 읽는 것”이라고 제시한 점이 주목된다. 이 글에 따르면 당시 미국에서는 ‘Standford’, ‘Burgess’, ‘Monroe’ 등의 소위 ‘표준목독검사’ 시스템을 마련하여 아동의 읽기 속도 및 이해의 정도를 용이하게 검사할 수 있었다. 위네트가 학원에서는 1년마다 목독검사를 통해 아동의 독서능력을 측정하고, 표점 결과를 반영하여 학력에 맞는 책을 선정하여 읽도록 지도했다. 뿐만 아니라 학년별 읽기가 완료되면 책과 연계시켜 작문교육을 실시했다. 이러한 독서교육은 아동들의 독서능력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기타 기사 내용을 보면, 이 학원에서는 목독검사 외에 음독을 통해 독서 능력을 검토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학교도서관 및 아동문고 등을 설치하며 아동 독서교육에 진력했음을 알 수 있다.

보다시피 〈個性教育〉(8)과 (12)에서 소개한 내용은 미국 학교에서 실시되는 독서교육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앞서 국내 학교교육이 교과서 교육에만 머물러 있음을 비판하는 논의들을 볼 수 있었는데, 그와 비교하여 위네트 학원의 경우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준별 도서 선택과 효과적인 독서교육을 실시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기사는 선진적인 해외 독서교육을 반면교사로 삼아 당대 국내 공교육의 독서교육을 반성케 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위와 같은 맥락으로 기타 ‘정언생(鼎言生)’이라는 필자에 의해 쓰여진 〈泰西教育의 歴史的 觀察(七)〉(『동아일보』, 1921.5.20)에서는 서양의 교육철학사를 논하는 가운데 로마시대 세네카의 독서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독서교수법은 그 문자와 명칭과 형상을 동시에 교수하며 이해와 기억을 용역케 하기 위하여 완롱물(玩弄物)을 사용”하라는 세네카의 교수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아동 독서지도 시 문자와 부합되는 시청각적 요소의 활용이 효과적인 방법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泰西教育의 歴史的 觀察(一二)〉(『동아일보』, 1921.5.27)에서는 서양의 고대 독서교육을 논하면서, 학생 재능과 기호에 맞는 책을 선택해주고 그 후에 독서교육을 실시했다는 예를

들기도 했다. 그러면서 아동의 재능과 취미에 부합되는 독서교육교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이 외 〈朝鮮教育의 缺陷(二十一)〉(『동아일보』, 1930.9.30)에서도 미국의 ‘창조학교(創造學校)’에 대해 소개하면서, 활동(Activity) 중심의 교육방법을 실행하는 음독(音讀) 독서교육, 독서와 작문과의 연계학습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상 살펴본 기사들은 선진적인 해외 아동 독서교육의 사례를 통해, 암암리에 우리의 아동 독서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1920~30년대 당시, 조선·동아 양지에 게재된 국내의 아동 독서지도론들을 살펴본다. 이를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적용될만한 방법론도 제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양 신문에서는 아동만을 특정하지 않은 〈지독후감(紙誌讀後感)〉(동아), 〈근독이삼(近讀二三)〉(동아), 〈독서질의(讀書質疑)〉(동아), 〈뽕 리뷰〉(동아), 〈학생독서(學生讀書)〉(조선), 〈읽고시픈 책 권하고시픈 책〉(조선), 기타 독서를 유도하는 신간소개란 등 다수의 독서란을 볼 수 있다(윤금선 2007, 405-407). 한편 본고에서는 두 신문만을 대상으로 분석했지만, 동시기 여타 신문에서도 독서지도 관련 기사들을 게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지면들은 아동이 아닌 성인 독자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결국 성인 주체의 아동 독서지도를 제언한 내용들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독서유도나 독서지도론은 신문이라는 매체의 성격상, 독자들에게 그 파급력도 컸으리라 여겨진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1920~30년대 『동아일보』, 『조선일보』에 게재된 아동도서관 설립 운동 및 독서지도론을 중심으로, 아동 독서운동의 전개상을 고찰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양 신문은 아동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아동도서관 설립의 필요성, 아동 독서지도와 관련된 기사들을 꾸준히 게재했다. 본고에서는 이에 주목하며 연구를 진행했으며, 그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20~30년대 아동 독서를 강조한 배경적 의미와 이와 병행된 아동서관 설립에 대한 논의들을 탐색했다. 3·1운동 이후 식민통치의 변화와 함께 조선 교육계에서는 민중교육론이 새로운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종교단체를 비롯한 각종 사회단체는 민중을 자신들의 영향권 내로 포섭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으며, 농민·노동자교육론, 여성교육론, 아동교육론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특히 1920~30년대는 아동교육론이 급속히 확산된 시기이기도 하다 ‘어린이날’의 제정, 각종 소년단체의 조직과 소년운동의 전개, 교육열의 급속한 팽창, 아동용 출판물의 급증, 아동문화의 제도화 등이 이루어졌다. 한편 민족 회복이 당면 과제였던 당대는 “이는 것이 힘”이라는 인식

하에 그 어느 때보다 독서가 강조되었던 시기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아동교육에서 독서교육이 중시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천도교 문화운동이론가인 이돈화나 어린이 운동의 창시자인 방정환이 지적한 바, 아동들이 “조선민족의 갱생”을 책임질 미래세대라 여겼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도서관을 통한 독서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아동도서관 설립이 추진되기도 했다. 아동도서관을 설립하자는 논의에서는 ‘선조들의 경험과 연구 내용을 전수하는 수단’, ‘독서 취미의 향상’, ‘과외독서의 고취’ 등을 들었으며, 이러한 아동도서관 설립 운동은 각지의 소년문고 운동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즉 각지 학교, 청년 및 소년 단체 등에서 ‘소년문고’, ‘아동문고’, ‘순회문고’, ‘간이문고’ 등의 이름으로 문고 설립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의 아동도서관이나 국내 문고 등의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들을 통해, 체계적인 운영 문제를 고민하기도 했다.

둘째, 당대 활성화되었던 아동도서관 운동과 함께 조선·동아 양 신문에서는 독서란을 통해 독서지도 방법을 게재했다. 기사 내용을 보면, 대개 학교의 교과서 교육만으로는 정서교육이나 독서력 신장을 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과외독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편 1920~30년대는 아동 독서지도법에 관한 기사들이 다수 게재되었다. 1930년대에 이르면 그 내용들이 더욱 다양해지고 지면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문맹퇴치 운동과 독서구락부 운동 등으로 문식성이 향상된 시기적 상황이 가세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들은 대개 가정에서 어떻게 독서지도를 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다루는 경우가 많다. 일련의 기사들은 가정 독서교육에서 가장 우선시할 것이 바로 자녀들의 독서습관 함양에 있으며, 이를 위해 부모들이 어떠한 책을, 어떻게 읽혀야 하는가라는 방법론을 제시한 것들이다. 한편 독서란에는 국내 독서지도법 외에도 해외 사례를 통한 독서교육 방법이 소개되기도 했다. 선진적인 해외 아동 독서교육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암암리에 우리의 아동 독서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논의라 할 수 있다.

이상 1920~30년대 동아·조선 양지에 게재된 아동도서관 운동, 국내외 아동 독서지도론 등을 통해 아동 독서운동의 전개상을 정리해 보았다. 이러한 내용에서 당대는 아동 독서교육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으며, 국내외 사례를 통해 그 방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일제강점기라는 특수한 현실에서, 우리 민족의 회복은 바로 ‘무지’에서 ‘앎’으로 이행하는 데 있다고 여긴 점도 주목된다. 우리에게 있어 독서의 필요성은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1920~30년대의 경우에는 식민지하라는 암울한 현실에서 ‘자각’의 측면에서 독서가 더욱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래 세대를 짊어질 아동들의 지적 향상은 바로 민족 회복의 지름길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아동독서를 것처럼 중시한 것이라 하겠다. 여기에 가정에서의 독서지도론이 활발하게 논의된 점도 주목된다. 이는 당시 학령 아동들이 그만큼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하겠다. 또한 그

지도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본고에서 다룬 자료들은 다름 아닌 신문에 게재된 경우라는 점에서, 매체의 성격상 당대 독자들에게 끼친 영향력도 컸으리라 여겨진다. 한편 일제강점기에 논의되었던 아동도서관 설립 운동이나 도서지도론과 비교하여, 현재 아동 독서운동의 현황은 어떠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당대에 제시되었던 독서교육론 중에서 이 시대 아동 도서지도에 유효한 방법론은 없는지 이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남석. 1996. 일제시대 농촌문고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24: 335-364.
- 김봉희. 1999. 『개화기 서적문화 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김형목. 2009. 『교육운동』. 천안: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방정환. 2020. 『조선소년운동의 역사적 고찰』. 서울: 온이퍼브.
- 윤금선. 2007. 日帝強占期 學生 讀書活動 연구 - 新聞 讀書 관계 記事를 중심으로. 『語文研究』, 35(1): 389-414.
- 윤금선. 2009a. 민족적 관점에서 본 경성도서관(京城圖書館)의 사회교육과 독서운동 실태 및 의의.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2): 375-407.
- 윤금선. 2009b. 『우리 책읽기의 역사(1)』. 서울: 월인.
- 이돈화. 1921. 새조선의 건설과 아동문제. 『개벽』, 18: 23.
- 임수경. 2010. 1931년 『동아일보』의 『독서주간(讀書週間)』 연구. 『반교어문연구』, 29: 65-93.
- 장석홍. 2013. 근대 소년운동의 독립운동사적 위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5: 253-276.
- 조은숙. 2006. 식민지시기 '동화회(童話會)' 연구 - 공동체적 독서에서 독서의 공동체로. 『민족문화연구』, 45: 225-264.
- 최덕교. 2004. 『한국잡지백년 2』. 서울: 현암사.
- 황의룡. 2019. '조선교육령'을 통해 본 여성체육정책에 관한 연구: 제3~4차 개정령을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58(6): 33-41.
- 동아일보아카이브. <http://www.donga.com/pdf/archive/archive_help.html> [인용 2020. 8. 10].
- 조선일보아카이브
<http://srchdb1.chosun.com/pdf/i_archive/read_file.jsp?file=artWhatpdf.htm>
[인용 2020. 8. 10].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ang, Jung Hwan. 2020. *Historical Review of the Juvenile Movement in Joseon*. Seoul: Onepurpe.
- Chang, Seok Heung. 2013. "The Status of the Modern Movement of Boys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Journal of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Studies*, 45: 253-276.
- Cho, Eun Sook. 2006. "A study on the Mass Meeting for Oral Performance of Children's Story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Korean Culture Studies*, 45: 225-264.
- Choi, Duk Kyo. 2004. *Hanguk Chapchi Paengnyon (2)*. Seoul: Hyeonamsa.
- Hwang, Eui ryong. 2019. "Research on the Female Sport Policy Based on the 3rd and 4th Joseon Educational Ordinances."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58(6): 33-41.
- Kim, Bong Hee. 1999. *A Study on the Book Culture in the period of enlightenment*.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 Kim, Hyung Mok. 2009. *Educational Movement*. Cheonan: Institute of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History at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 Kim, Nam Seuk. 1996. "A Study of Rural-mini Libraries under the Japanese Occupa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4: 335-364.
- Lee, Don Hwa. 1921. "Construction of New Joseon and Children's Problems." *Gaebyeok*, 18: 23.
- Yeun, Keum Sun. 2007. "A Study on Student Reading Activity in Japanese's Colonial Period." *The Society for Korean Language & Literary Research*, 35(1): 389-414.
- Yeun, Keum Sun. 2009a. "A Study on Social Education, Reading Movement and Meaning of the Gyeongseong Library Which Observe from Ethnic Viewpoint."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2): 375-407.
- Yeun, Keum Sun. 2009b. *The History of Our Reading (1)*. Seoul: Worin.
- Yim, Su Kyung. 2010. "Study on 'Book Week' of Dong-A Ilbo in 1931." *Journal of Bangyo Language and Literature*, 29: 65-93.